

시카고 한인타운의 텍스트 해석

김왕배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학 전공

1. 머리글

구한말 조미(朝美)조약이 체결된 이후 공식적인 한국인의 미국 시카고 방문은 도자기, 의류 등의 토산품을 들고 1893년 개최된 세계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일군의 조선 사신들로 알려져 있다. 시카고 호수변을 따라 장엄한 로코코 양식의 자연사박물관의 창고에는 지금도 그때 조선인들이 남기고 간 몇 점의 물품들이 묻혀 있다. 19세기말 전세계가 제국주의의 발흥으로 '혼돈'스러웠던 시기에 극히 소수의 정치인과 유학생, 상인들이 미국 땅을 밟고, 이후 공식적으로 1903-1905년까지 7,000여 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 사탕농장의 막일꾼으로 미국 이민사의 첫 장을 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만이 3년간의 호된 노동계약을 끝낸 후 조선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미국 서부지역으로 유민되어 한인들의 지역이 형성되고 있었다.

오늘날 미국 내의 대규모 한인타운은 크게 로스앤젤레스(LA) 지역과 뉴욕, 그리고 시카고에 형성되어 있고, 여러 지역들(예컨대 워싱턴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에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한인지역이 있다. 한국인이 미국 땅을 밟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아메리칸 드림' 때문이었고, 이 꿈은 이미 한 세기 전 첫

하와이 이민들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함이 없다. 그들에 의해 형성되고 재생되고 있는 한인타운은 바로 그러한 꿈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산물이다.

시카고 한인타운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실천의 산물로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인들의 주요 생활근거지로서 생활품의 집산지이고, 경제행위와 여가의 행위 등이 집중되어 있는 소비공간이다. 시카고 한인타운에는 한국어로 표현된 수많은 간판들과 상호들이 있으며, 그 중심지에는 시(市)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명된 ‘서울거리’(Seoul Street)가 형성되어 있다. 한인타운은 한인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행위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일상적 실천들을 통해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퇴적된 공간으로서 한인들의 정치, 경제행위, 가치, 감성, 담론과 여러 물리적 표현체들로 구성된 텍스트(text)이다.

이 공간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글은 도시공간론적 해석학적 입장에서 한인타운의 구조화 과정을 추적해보고 그 특징들을 캐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쓰는 것이다.

2. 텍스트로서의 도시공간

텍스트란 ‘일련의 기호 집합체’로서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맥락 안에서 작가가 의도하고, 정렬한 기호들의 집합적 실체’이다 (Garcia, 1995: 4). 의미를 갖는 기호의 구조인 텍스트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 살고 있는 주체들이 상호의사소통 과정에서 ‘상징’을 조합하고 사용함으로써 생겨난다(Fornas, 1995: 149). 좁은 의미에서 텍스트는 ‘쓰여진 것으로서 고착된 특정한 담론’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텍스트는 ‘상징을 표현하는 것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글은 물론 건축이나 그림, 음악, 거리, 신체적 운동 등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의미들로 가득 찬 도시경관(urban landscape) 역시 텍스트이다. 즉,

인간 주체의 산물인 표현체로서의 도시경관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고, 이 다양한 의미구조의 복합체로서 경관은 읽혀질 수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

도시경관의 의미는 주체가 특정한 의미구조를 삽입하고 독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도시건축물이나 길거리, 장식물, 간판, 아파트 심지어 주유소 등에 이르기까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표현체 속에는 만든 이들의 ‘의도된 의미’와 보는 이들의 ‘해석된 의미’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 의미로 구성된다.¹⁾

공간형성에 관련된 물적 자원을 생산하는 실천(공간의 하부구조, 이를테면 도로, 항만, 철도, 빌딩 등을 생산하는 행위)과 다양한 표현체(건축물, 박물관, 도시계획 등)들을 통해 공간은 하나의 독특한 의미를 획득한다. 르페브르가 그의 저서 『공간의 생산』(*Production of Space*)에서 공간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간과 사회과정(social process)은 변증법적 관계로 엮물려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실천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며 소멸되기도 한다(Lefebvre, 1974).

공간형성에 관련된 물적 자원을 생산하는 실천(공간의 하부구조, 이를테면 도로, 항만, 철도, 빌딩 등과) 다양한 표현체(representaton: 건물, 도시계획 등)들의 실천을 통해 공간은 복합적 의미를 형성한다. 다양한 실천의 결과로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은 또한 담론체로서의 텍스트이다. 담론이란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언술들, 개념, 이데올로기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그리고 이 담론이나 상징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1) “우리는 모든 경관을 상징적인 것으로, 문화적 가치나 사회적 행위, 시간에 걸쳐 특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간행위의 표현들로 보고자 한다”(Meinig, 1979: 6). 의미의 삽입과 해독은 코드화(encoding)와 탈코드(decoding)를 논의한 홀(Hall)의 입장과 비슷하다. 코드화란 기호의 형태를 취해 저자가 텍스트 속에 의미를 불어넣는 과정이며 탈코드는 독자들이 그 의미를 재생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탈코드화 과정에서는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Hall, 1994).

‘의미’들이 퇴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거리나 동상, 건축물, 다리 등에 전설이나 신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서술들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²⁾

의미는 모든 동일한 구성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차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텍스트로서의 경관 분석은 텍스트 속에 사회적 관계들이 각인되어 있으나 사회적 관계들은 계급, 성, 국가, 인종 등의 권력에 의해 질서화되고 위계화되어 있다. 기호, 상징, 아이콘(icon), 계율들을 통해 권력집단은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텍스트에 부가하려하고, 저항집단은 다시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려 한다(Duncan, 1990). 텍스트 속으로 의미가 삽입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권력관계가 교차된다. 의미는 단순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위계화된 개인들, 집단, 성, 인종, 계급 등의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경관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와 담론은 권력의 산물이다. 이를테면, 차이나타운(China Town)이란 담론은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공간’이라는 지시체적 담론을 넘어서 다양한 함축 의미들, ‘신비한 혹은 열등한 아시아인들의 삶의 장소’, ‘호기심을 유발하는/관광의 장소’, ‘유혹과 부도덕한 쾌락의 공간’, ‘범죄와 빈곤’ 등의 의미를 타자들로부터 얻고, 이러한 의미는 권력을 지닌 백인들에 의해 규정된다(Anderson, 1988).

그렇다면 텍스트로서 도시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해석학은 텍스트에 삽입된 기호와 메시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해석학은 성경의 주석 이해로부터 인문학은 물론 기호학, 현상학, 언어철학, 의사소통이론, 종교학, 미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줄기로 발전해오면서 많은 쟁점을 불러오고 있다(Palmer, 1969; Bleicher, 1980). 다양한 흐름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은 ‘의미해독’을 위한 방법론로 도시경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해석학은 언어나 이미지, 개념, 신화

2) 담론은 주체들의 상호의사소통의 관계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다(Swingewood, 1987; Hall, 1997). 서틀즈는 도시 이미지의 원천을 지역사회와 창립자들, 유명한 기업지도자들, 지역의 공산물 등에서 찾고 있다(Shuttles, 1984; Barnes and Duncan, 1992).

나 의례, 전통, 개인 도덕적 양심, 종교적 경험이나 과학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삽입(code)되어 있는 의미형태를 설명한다.³⁾

기호학 역시 해석학의 한 조류로서 도시공간의 텍스트 분석을 위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바르뜨(R. Barthes)는 도시 이미지는 무한한 은유의 담론이기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에 숨겨진 의미는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분석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Barthes, 1986). 도시는 담론이며 언어이다. 즉, 도시는 무언가를 거주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거주함으로써, 단지 그것을 바라보고 배회함으로써 도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는 모든 도시인구가 스스로의 길을 걸으며 백만의 시를 쓴다고 말할 정도로 도시의 모든 상호작용을 담론으로 본다. 그는 텍스트를 다(多)의미를 생성해내는 상징의 결합이며, 텍스트 읽기는 작가나 당시의 맥락과 상관없이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도시의 건축물, 거리 동상 등 물리적 대상들은 일차적 기의(denotation)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나 계급에 의해 생성된 함축적 코드(connotative codes)를 갖고 있다. 도시기호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파생의미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데 이는 바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이나 계급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⁴⁾

도시경관에 대한 의미분석은 거슬러 올라가면 건축물의 독해 방법에서 시초를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이미 뎀포드(L. Mumford)는 도시 속에 들어 있는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려 했고, 이후 건축학적 독해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⁵⁾ 사회학 분야에서 건축이나 도시의 물리적 경관에 대한 의미독해의 작업은 많지 않지만 킹(A. King)의 일련의 작업들은 매우 유용하다. 빌딩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필요에 의해 지어지지만 그 크기나, 장소, 형식은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신념체계 권위

3) 이에 대한 논의로 김왕배(2000)의 4장을 볼 것.

4) 도시기호학의 대상들은 도시공간을 이루는 요소들, 즉 거리, 광장, 빌딩, 외관들이다. 기호학은 또한 부의 소유권에 대한 법전, 도시계획에 관련된 글(텍스트),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담론, 부동산 광고 등을 포함한다.

5) "건축은 다양한 사회적 사실들을 반영한다"(Mumford, 1970: 401).

체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⁶⁾

요약하건대, 도시공간에 대한 해석학의 방법을 동원한 텍스트 분석은 공간의 경관을 구성하는 건축, 거리, 군중, 간판 등을 통해 공간을 형성한 주체들의 역사적 행위와, 계급, 인종, 권력, 이데올로기, 자본, 국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의미’들을 해독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그 작업으로부터 얻어내는 의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다.

3. 로렌스의 서울거리

시카고 호수변의 북쪽 도로를 따라 로렌스 입구로 들어서면 몇몇 극장과 바(bar)들을 볼 수 있다. 정돈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10여 분쯤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길모퉁이에 「여성의류도매」라고 가늘고 길게 쓰여진 한국어 간판이 눈에 띈다. 한인타운이 나타난다는 첫 신호다. 서너 블록 위로는 정갈한 붉은 색 바탕의 흰 영어 간판, 그러나 한국에서도 익숙한 「BANDO」(한인식당)가 보이며, 한두 블록 위에 「캐롤미용실」이라는 한글 간판이 있다. 그 맞은편으로 네모난 간판의 「송한방원: Song Orinetal Herb」이 보이고, 「영산세계선교회」라는 1층 건물, 그리고 맞은편에 장미꽃 한 송이를 그린 「샤넬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한국관」이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관이라고 한글로 쓰여진 간판의 하단부에는 “...런치 스페셜로... 도가니탕/해장국/떡국/만두국/순두부/육계장/닭도리탕” 등 순수 토속적인(vernacular) 음식이름이 적혀 있다. 한 블록 위로 일층의 허름한 「정보석상」이 있고, 같은 길을 따라 한 블록 위로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3층 건물이 서있다. 그 측면엔 글자가 반쯤 지워진 채로 「...도매사」이라 적혀 있고, 「장터국수」의 간판이 눈

6) “또한 거주지는 친족체계와 종교, 사회계층에 영향을 받는다”(King, 1980: 9).

에 들어온다.

몇 블록을 지나도록 한글 간판이 나타나지 않다가 「BeBe 베베: 잡화도매」가 다시 나타나고 요란스러운 영자간판과 함께 「샤스바디샴」이란 간판이 눈에 띈다. 알바니를 끼고 돌면서 단층의 허름한 건물 측면에 「미림 oriental noodle: 냉면/쫄면/각종 건강국수 주문생산」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그 옆으론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구장 표시와 함께 「로열당구장」이 보인다. 그 맞은편 역시 낡은 벽에는 ‘아파트렌트’라고 쓴 한글이 보이고 「곰탕하우스」 간판이 있다. 그리고 드디어 알바니(Albany) 길에 이르르면 「SEOUL Dr.」라는 간판이 걸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케지(Kedzie) 길이 바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인 타운에 들어왔음을 알게 된다. 여기저기에 한국말로 쓰인 간판이 보이고, 「클락슈퍼마켓」엔 집중적으로 한인상가가 둥그렇게 모여 있는 조그만 쇼핑몰이 있다. 흔히 한국의 다용도 건물 앞에 걸린 간판처럼 상가를 알리는 영자와 한글로 쓰여진 안내간판이 걸려 있다. 맞은편 네거리엔 초록색의 《한국일보》신문가판 통이 놓여 있고, 2-3층 되는 건물의 입구엔 「시카고성락교회/카매라교실/사진전시장/시카고한인조기축구회/김사진연구소」의 입간판이 붙어 있다. 맞은편으론 「박약국」, 「김동선메디칼센터」, 그리고 조금 위로 허름한 건물의 벽에 “교민을 위한, 교민의 은행, 메이훼어은행; Mayfair Bank”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여성의류도매전문」 가게가 있다. 바로 한 블록 위로 흰 바탕의 청색 글씨로 「종합수리센터」가 있으며 2층 건물의 유리창 창문엔 「일심한방원」(일자는 거의 지워짐)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로렌스 거리를 쭉 따라 양옆으로 한인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거리는 일명 “서울거리”로 불리운다. 거리는 지저분하고 차와 인파, 일방통행이 겹쳐 복잡한 편이며, 대개 오래된 건물과 난잡한 간판들로 어지럽다. 많은 인파들이 라틴계 혹은 라틴계 미국인들로서 이곳의 주요 고객이 그들임을 알 수 있다. 로렌스 길을 중심으로 10여 분의 원심형 거리에 군데군데 한인상가가 몰려 있다. 케지 길을 따라 포스터(Forster) 쪽으로 올라

가면 한적하고 다소 을씨년스러운 공터가 나타나고, 곧 「시카고노래방」과 「사진관」 간판이 나타난다. 이어 「샤프여행사」, 「알바니약국」이라는 간판이 보이며 그 옆에 생선횃집인 「등대」와 전형적인 한국형 「시카고당구장」이 보인다.

링컨 길을 따라서는 「진고개식당」, 그리고 그 밑으로 조그만 카페가 있고, 5분쯤 거리엔 「꽃피는 산골」이라는 주점과 「신라」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링컨과 포스터 길에 「접속」이라는 단란주점이 있다. 페터슨 길에는 「엔젤」이라는 간판의 무도회장(성인나이트클럽)이 있고, 군데군데에 단란주점, 식당들이 들어서 있다. 피터슨 길과 몬트로스 길에는 「O.K.」 등의 자동차수리점들이 있고, 「상하수도」라는 간판도 보인다.

그리고 약간 떨어져 「중부시장」이라는 큰 간판과 함께 대형 슈퍼매장이 나타난다. 그 간판에는 「중부시장/참기름」이란 글자가 쓰여 있고, 내부에는 김치를 비롯, 각종의 토속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다.

로렌스의 한인타운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1970년대의 서울 변두리나 지방의 읍을 연상케 한다. 4차선 정도의 길은 좁고, 지저분하며, 오래된 건물과 낡은 간판들로 가득 차 있다. 「여성의류전문」, 「서울이발관」 같은 경우 간판의 글체는 흡사 해방 이후 한국의 조그만 면 소재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대부분 한인가게의 간판은 매우 조악하다. 얇고 허름한 바탕의 재료를 썼거나, 직접 벽에 손으로 쓴 것들이 대부분이다(물론 최근 교외의 한인상가는 질 좋은 재료를 이용한 세련된 간판이 늘어나고 있다).

「한미백화점」은 백화점이라는 언술의 지시체와는 달리 사실 한국의 동네 슈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돈이 들어 보이는 간판’들은 별로 볼 수가 없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이미지, 즉 부와 화려함, 풍요, 고급스러움 등의 개념은 한인타운에 들어서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내린다.⁷⁾

7)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와락 눈물이 나오려 했다. 이곳이 미국이란 말인가? 내가 꿈꾸어온 미국은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풍요롭고 이런 것이었

로렌스를 따라 형성된 한인타운의 거리 이미지의 특징 중 하나는 위에서 묘사한 것처럼 한인들에게 익숙한 정서의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종종 외래어식의 표기도 있지만 한국의 토속적인 것을 상징하는 언어들, 이를테면 식당간판의 경우 “진고개”, “꽃피는 산골”, “신라”, “고향산천”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예 “한국관”과 같이 한국을 ‘지시’하는 언어들이 나타난다. 음식 이름 역시 참기름, 순대, 족발, 설렁탕 등 지극히 한국적인 것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또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 1> 시카고 한인타운의 한글 간판들



<그림 2> 로렌스의 서울거리



다. 한인타운 역시 그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아닌가?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재미사업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백화점이 있다는 말에 적어도 몇 층짜리 건물에 값나가는 물건들로 눈썹핑을 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살던 동네의 큰 슈퍼만도 못하다. 아, 한국의 롯데니 미도파와는 어렵도 없어.” #2 인터뷰.

가지로 ‘노래방’이 있고, 한국에서의 전형적인 4구 당구장의 간판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상하수도」, 「기원」, 「건강원」 등의 간판 역시 한국의 전형적 모습을 느끼게 한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전통과 생활양식이 바로 이 공간에서 ‘변형’(acculturation)되어 나타나고 있다기보다는 그대로 ‘전이’(transmission) 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계 안에서의 주(主)고객인 한인들의 태도는 매우 조심스럽고,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조용하며 단조롭다. 즉, 다인종 사회에서 권력의 변방에 위치한 소수인종의 영역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로렌스의 한인타운 지역은 히스패닉, 인도인, 흑인 등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으며 한인의 인구비율은 9번째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주소를 로렌스에 둔 거주자들은 드문 편으로 많은 한인들이 낮에는 이곳에서 물건을 사거나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교외로 나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로렌스의 ‘서울거리’는 한인들에게 이곳이 명실공히 한국인이 지배하는 거리임을 상징하는 담론으로 존재한다.

4. 시카고 한인타운의 역사적 기원

한국인들이 처음 시카고로 이주하는 역사는 하와이 이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와이에 첫 이주한 민간노동자로는 1901년 5명을 시초로 1902년 12명, 그리고 1903년 첫 집단이주가 시작되어 1월 13일 제1차 이민단(남자, 48명, 여자 16명, 어린이 22명)이 도착한다. 하와이 초기 이민들 중 배를 타고 온 강영소 일가와 같은 시기에 도미한 김경(金景)이 시카고 한인 사회를 처음으로 여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강영소는 그의 아버지 강명화를 따라 1903년 하와이 이민선으로 5형제가 함께 이민했으며 1911년 도산 안창호와 깊은 인연을 맺고 독립운동에 관여하기도 했고, 1922년 시카고 대학 부근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의 동생 3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합세 1924년 로렌스와 케지(현 한인타운의 중심지)에서 식당을 운영했다.⁸⁾ 안(Josheph Ahne)의 조사에 의하면 1915년경에 김경이라는 이름을 지닌 한인을 필두로 하와이 농장으로부터 미국 서부를 거쳐 일단의 사람들이 시카고를 밟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⁹⁾ 그리고 일단의 유학생집단이 교회활동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20년경 시카고에는 이미 소규모의 한인들의 집단이 형성되고 있음을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928년경, 시카고 다운타운의 워싱턴 스트리트에 있는 감리교에서 아주 기쁜 결혼식이 열렸다. 200여 명이 조금 넘을까한 하객들 중에 120여 명 정도가 한인들이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그렇게 한 장소에 많이 모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40세였던 김경 씨는 그 당시 훌륭한 사업가로서 미국 전역의 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다. 그의 신부 베스트에 임(Bestie Lim)은 20대 후반의 나이였다. 그녀는 1924년 23세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와 오하이오에 있는 웨슬리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결혼식을 올린 그들 커플은 지금 현재 알바니의 한인타운이 되어 있는 케지와 윌슨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김경 씨는 1966년 78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타계했고, 부인은 부르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다.¹⁰⁾

1920년대경 시카고 대학에는 염광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심리학 전공의 유학생을 필두로 노스웨스턴 대학의 학생 등 한국인 10여 명이 거주하고

8) 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 칠십년사의 자료에는 당시 시카고 거주 한인들의 교회활동을 추적하면서 시카고 한인의 출신, 이민경로, 활동 등이 적혀 있다. 대부분 한인 초기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정부 각료, 교수, 사업가가 된다. 한편 이민사에 대해서는 신성려(1985), 민병용(1985) 등을 볼 것.

9) 김경은 1905년 15세에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 몇 년 동안 LA에서 영어공부를 한 뒤 1910년에 네브라스카에 있는 소년병 학교(박용만이 조직)에 입학했다. 그후 그는 시카고에 건너와 다양한 사업과 세일즈를 하기도 하고, 양복점과 식당을 경영하기도 했다(《한국일보》, 1979년 8월 2일자).

10) 《한국일보》, 1980년 1월 9일자; J. Ahne(1995: 465)에서 재인용.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이들은 한국학생연합을 결성하여 타지역의 학생연합들과 빈번한 교류를 지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으로부터 건너온 일군의 유학생집단이 한인 커뮤니티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에야 비로소 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된다.¹²⁾ 시카고 한인이민 중에는 서독으로부터 건너온 광부 및 간호사들의 집단이 두드러진다. 1963년 한국 정부는 서독 정부와 광부 및 간호사의 계약노동자들을 송출하기로 합의했고, 1974년경 7,000여 명의 광부와 1만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명분이 광부일 뿐 당시 ‘학사광부’라고 일컬어질 만큼 한국에서 대부분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로써 고된 노동조건 하에서 계약이 끝난 후 일부가 한국으로의 귀환대신 시카고로 이주하고 있다.¹³⁾ 이들은 1969년 200여 명에 달하는 동호회를 조직, 시카고 한인타운의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로렌스 한인타운은 1970년 후반부터 하나둘씩 한인가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형성되었는데 처음에는 흑인거주지역인 ‘사우스’(South)에서 물건을 판 후 이곳에서 술 한잔하고 근처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의 역할을 하였다. 한인상가가 밀집되기 전에 이곳은 유태인과 폴란드 인들의 상가밀집지역이었다. 지역 경기가 후퇴하면서 그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처분하

11) 시카고에 최초로 발을 디딘 한국 유학생은 서재필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갑신정변 이후 도미, 1885년 조지워싱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의 조지 뷰캐넌 암스트롱 대령의 딸과 결혼하여 시카고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에 이어 1893년 윤치호가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감리교회 총회에 참석차 왔다고도 전해진다(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칠십년사』, 40쪽).

12) 1970년 미국 센서스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 한국인은 6만 9,000명이고 이중 3,673여 명이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13) 당시 한 광산노동자의 기억은 이렇다. “되살리고 싶지 않지만 독일로 떠나던 날 메어지는 가슴을 여적 기억하고 있다. 내 가슴속에는 온통 나에게 입에 풀칠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던 조국, 한국에 대한 비난과 경멸뿐이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할머니를 봉양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를 두고 난 떠나야만 했다. 오, 내가 마치 노예처럼 계약노동자로 떠나야 한다니, 너무 슬프고 창피할 따름이었다”(Ahne, *ibid*, p.476에서 재인용).

<표 1> 미국 주요 도시의 한인 인구변화(1910-1970년)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시카고	-	27	64	39	48	297	1,666
호노룰루	460	1,319	2,604	-	4,802	3,592	3,375
LA	14	84	345	482	330	2,034	5,363
뉴욕	4	18	86	-	116	536	3,394
샌프란시스코	39	77	143	81	90	724	996
시애틀	61	37	15	6	23	172	472

출처: 미연방인구통계국. 시카고한인제일감리교, 『칠십년사』, 39쪽에서 재인용.

고 타지역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를 한인들이 메운 것이다.

로렌스 한인타운의 서울거리는 1993년 한인들의 의뢰를 받은 시카고 시의회가 명명함으로써 ‘탄생’했다. 지역 상권이 한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반면 실제 한인 거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인종의 반발을 우려한 시의회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고, 일부 다른 인종집단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1993년에 서울거리로 지정을 받는다. 현재 로렌스의 상가는 45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중 60%가 한인소유로 되어 있다. 서울거리는 한인들의 시장확대와 경제적 자립,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

5. 도시 비공식 부문의 경제행위

미주 전체로 볼 때 한인들의 자영업 종사비율은 타 아시안 이민층에 비해 매우 높다. 1990년 센서스 표본에 기초한 자영업 종사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27.9%, 여성의 경우 18.9%로 중국계의 13.5%, 9.1%, 인도계의 11.7%, 7.4% 그리고 미국 전체의 10.8%, 5.8%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 자영업은 주로 일반소매업, 식품업, 개인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¹⁴⁾

14) NKASEC, *An Economic Profile of Korean American*, 1998. 한인들의 자영업은 도시 비공식 부문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현황과 문제 점등에 대해 Kim, Kwang-Chung and Kim, Shin(1997); Min(1988) 참조.

시카고 한인타운의 한인들의 경제활동 역시 자영업이 주를 이룬다. 소수의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 주로 의류, 신발, 가발, 핸드백, 보석, 장난감등의 잡화를 판매하고 있거나 슈퍼마켓이나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그들은 1960-1970년대 한국의 수출주도화 산업 과정에서 값싼 수공제품들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상품으로 판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가발은 한인들에게 좋은 ‘돈벌이’였다.¹⁵⁾ 1970년대 한인들은 현재의 한인타운이 아닌 흑인거주지역인 ‘사우스’(South) 지역에서 ‘위험한’ 장사를 했다. 범죄율이 높은 흑인거주지역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가발, 염색약, 액세서리, 의류 등을 판매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임금상승과 제품가의 상승, 그리고 미국 내 사회복지기금의 삭감으로 흑인들의 구매력이 저하되자 많은 상가들이 사우스 지역을 포기하고 현재 로렌스 지역이나 교외근방으로 상권을 이동시켰다.¹⁶⁾

한인타운은 전형적으로 도시 비공식 부문의 현장이다. 도시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은 마치 제3세계에서의 비공식 부문을 연상하게 한다. 물론 비공식 부문에 종사한다는 것이 곧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착취형’ 노동조건으로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쌓여 있기도 하다.¹⁷⁾

남자 이민자의 경우 거의 60% 정도가 대졸 출신이면서도 이들은 대부분 도시 비공식 자영업 부문이나 공장노동자로 일해야 했다. 현재 주유사업을 하고 있는 장모 씨는 한국에서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그는 ‘보다 나은 삶’의 포부를 갖고 1970년초 시카고를 밟았지만 ‘허리를

15) 현재 시카고 지역 내에 갑부로 알려진 모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가발은 흑인들에게 가장 큰 인기품목이었고, 한국에서 40-50달러 정도로 수입, 최고 300-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16) 시카고 사우스 지역의 한인상가는 한때 400여 점포를 기록했으나 현재에는 40-50여 개로 추정된다. 이는 미주 타지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1980년 후반에는 수입선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뉴욕 및 LA 한인의 직업활동에 대한 연구로, Min(1988, 1996), Light and Bonachich(1988) 참조.

17)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시 비공식 부문의 출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민노동과 노동시장의 이원화 등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졸라매는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다운타운 근처의 조그만 잡화상을 구입해서 장사를 했다. 장사의 경험도 전혀 없는데다가 말도 통하지 않아서 무척 고생을 했다. 하지만 무섭게 일했다.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그저 밥은 가게 귀퉁이에서 해결해가며... 어느 날 하도 피곤해서 가게 벤치에서 조금 쉬는 것이 그만 꼬박 잠이 들고 말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지인줄 알고 센트를 던져주고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한국에서는 최고학벌을 가진 내가 왜 이곳에 왔나 싶었다.

신모 씨 역시 1967년 연세대학교를 나온 대학을 졸업한 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미국 시카고에 이민온 경우이다.

월남전 때 통역장교를 해서 웬만큼 영어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곳 공황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아니구나 싶었다...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근방의 공장에 나가 일도 해보고, 짐꾼노릇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택시운전도 해보고... 용케 수입선을 잘 잡아서 동남아를 상대로 수입상회를 차리게 되었지...

당시의 한인 이주자들에게는 경제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뿐 아니라 인종차별과 언어장벽이 고된 일상을 가중시켰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가 1960년초인데 아마 그때가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을 거야... 하긴 우리도 흑인애들을 보면 그랬으니까... 아르바이트로 식당 보이로 일을 하는 데 하루는 흑인이 들어왔어. 백인 주방장 친구가 스프에다 소금을 엄청 뿌려대서 다시는 못 오도록 하라는 거야. 재수 없게소리 손님 떨어진다고... 내가 집을 나설 때 동네 꼬마애들이 나를 보고 킁킁 웃고는 조그만 돌멩이도 던져보고, 원숭이 취급을 하는 거야. 어떤 놈은 글세 내 팔을 만져보고는 힘이 있네 하고 달아나는 거야... 모르는 척 했지.

1970년대까지 한인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이는 1980년

중반까지 이어진다. K씨는 연세대학교를 나온 후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경제난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현재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동양철학계의 거두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자니 너무 억울하더라구. 애까지 낳았으니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지. 할 수 없이 도깨비시장에 나가서 행상을 했어. 주고객들이야 물론 흑인애들, 히스파닉애들인데 개네들이 악세사리 등을 좋아하거든... 잘 만하면 목돈을 움켜쥐기도 하겠더라구. 실제로 그때 돈을 번 친구들이 로렌스 근처에 가게들을 하나씩 내서 지금 ‘밀리어내어’ 소리 듣는 친구도 있어. 나는 끝물을 탔는데 어느 날 가짜 상표 시계를 팔다가 경찰단속에 걸려서 법정에도 서보았지. 번 거 다 까먹고... 하지만 또 열심히 일했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옷감 띠러 가고...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하나 둘 현재의 한인타운에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1980년 후반에 본격적으로 한인상가들이 밀집하게 된다. 이곳 한인타운은 바로 도시 비공식 부문에서 고된 노동으로 일군 한인 이주민의 결산물이다. 허름한 건물들과 벽, 지극히 한국의 토속적인 언어들, 치장도 없고 수리에 관심도 없어 보이는 간판들은 한인들의 삶의 조건들을 잘 보여준다.

미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이미지의 일순위가 ‘일벌레’이듯¹⁸⁾ 한인들은 주로 도시 비공식 부문에서 ‘열심히 일해왔고’ 그 결과 그들의 2세들은 상당 부분 전문직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중산층의 소득에 가깝게 되었다. 그들에게 삶의 흔적들은 하나의 기억으로서 한인타운의 경관(landscape)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18) 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20대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장시간노동(일벌레)’, ‘김치/불고기/경제성장/도전적, 거칠고 부정적 성격/가족지향/태권도, 무술/한국전쟁/DMZ, 38선, 분단/1988서울올림픽/M*A*S*H/학생운동, 노동운동, 폭동/LA폭동/한인타운, 소자영업/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북한의 테러리즘, 핵무기/북한기근/작고 까만 동양인/보신탕/칼라폴한 의상/가난과 후진성(Coleman, 1997).

6. ‘네트’(net)의 공간

한인타운은 또한 한인들의 거미줄 같은 연계망과 조직들로 가득 찬 공간이다.¹⁹⁾ 한인회를 비롯 상인들 조합인 상공회의소, 한인무역협회, 시카고한인 사회복지회, 노인복지회, 한인문화센터 등이 로렌스 거리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이외에 한인교회들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시카고 내 교회는 현재 200여 개로 추정되는데 한인 사회가 교회와 비(非)교회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한인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매우 지대하다.²⁰⁾ 하와이 한인 이주가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초기 이민자들이 주로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이 미주 한인들에 대한 교회 역할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1920년대 소규모 한인들의 모임공간으로, 한인들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교회는 한글학교의 운영을 비롯하여 여러 행사들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민자들의 현지적응을 도와준다.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주로 향우회나 종친회를 만들었지만 한인들은 교회를 세워 커뮤니티를 이루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²¹⁾

그러나 한인타운에는 조직들간의 협력과 화목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의 생리라고 할 수 있듯이 다양한 조직간 혹은 조직을 둘러싼 집단과 개인들 간에는 ‘현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한인회의 회장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한인 전체 사회를 균열시킬 정도로 심각하기도 하다.²²⁾ 이 갈등은 주로 명예와 경제적 이해에 의해 비

19) 참고로 미주 한인들의 생활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로, 민병갑(1991), 이광규(1989), 유의영(1992), 최봉운(1983), 뉴욕한인회(1986) 등을 참고할 것.

20) 교회의 역사가 곧 이민의 역사라고 할 만큼 한국이민사에서 교회의 역할을 지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회가 난립, 신도 끌어들이기 경쟁을 그치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1) 미국 본토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항 한국인 감리교회’이다. 1904년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50여 명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친목회가 조직되었고 1906년 정식으로 한국인 교회가 세워졌다. 장태환·김정희(1995: 76).

뜻되는데 현재 한인회는 한인 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와 타조직 간에도 가끔씩 불화가 발생한다. 예컨대 개별 교회들이 한인단체와 별도로 3·1절 행사를 개최하거나 2세들의 지신밝기와 같은 행사를 미신으로 규정, 전통문화를 경원시하는가 하면, 한인행사 등에 불참하는 등 타집단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조직적 연결망 이외에도 한인이주지들은 여러 비공식 연결망(informal network)을 통해 자원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각종 친목단체나, 직종에 따른 직업단체들, 계와 같은 상부상조의 결사체 등을 조직하여, 밀도 있는 ‘네트’(net)를 형성한다.²³⁾ 비공식 연결망을 통한 인간관계는 한인 1세들의 심리적 유대를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통로이다. 친목모임에서 1세들은 노래와 가무를 즐기고, 한국의 토속적인 음식을 나누며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정서들을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

비공식 연결망을 통한 단체들이나 준-공식조직은 단순히 심리적인 유대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적 기반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는 그들에게 친목회원은 중요한 고객이 되기도 하며, ‘계’와 같은 조직을 통해 ‘사업’이나 자녀들의 학비, 주택구입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사업상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공식 연결망은 이른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매체는 한국과 미국의 한인타운을 직통으로 연계시켜 주는 ‘복도’(corridor) 역할을 한다. 한국 내 주요 일간지와 잡지들의 주요 기사들이 미국의 지사를 통해 그대로 이민사회에 전달되고 있다.²⁴⁾ 한미

22) 예컨대 1997년 한인회장선거에서는 전임회장단과 현회장단과의 극단적인 분열상을 보여 법정싸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인회장은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큰 이득을 차지할 수 있는 지위이다. 예를 들면 임기 후 시정부로부터 특정 사업의 허가권 등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23) 한 사람이 보통 4-5개의 결사체의 일원이 된다. 조그만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K씨의 경우 충청향우회, 연세대 동문회, 신일고등학교 동창회, 그리고 요식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동시에 친목도모를 위한 계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계에 가입하고 있다.

TV 방송 역시 미국의 한인 사회에 한국의 문화, 특히 대중문화를 이식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연속극이나 코미디물이 그대로 방영되는가 하면, 한국으로부터 직송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소재들과 뉴스들이 자체 제작의 프로그램 양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매년 봄에 열리는 거리축제는 이 공간이 한인들의 ‘공공영역’임을 확인시키는 문화행사이다. 비록 많은 한인들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의 포장마차, 장기자랑, 춤, 노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인들의 커뮤니티의 정서를 다진다.²⁵⁾ 특히 2세들이 주도하는 풍물패의 지신밟기는 한인들의 전통을 새기는 매우 큰 상징적 행사이다. 주변의 대학과 문화센터의 청년들이 전통의 재현을 통해 ‘뿌리찾기’ 의식과 한인들의 결집, 집단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문화행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공간적 실천이다.²⁶⁾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는 여러 생활방식과 조직, 매체들을 통해 공간적으로 전이되고, 또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로렌스의 한인타운은 바로 이러한 조직과 연출망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이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 경관은 그들이 이민을 떠난 한국의 1970년대에 고착되어 있다. 허름한 건물, 그리고 건물벽에 빈틈없이 들어선 순 한글식의 간판이 한인 이주민들의 삶의 경로와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24) 한국의 주요 4대 일간지 중 조선, 한국, 중앙 등이 시카고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들 신문의 2-3면은 한국의 뉴스를 그대로 싣고, 나머지 면들은 시카고나 미주 한인들의 소식, 그리고 광고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25) 시카고에는 여러 민족집단들이 그들의 커뮤니티나 시가지에서 다양한 거리축제를 벌인다. 한인들 역시 거리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참가자는 그리 많지 않다.

26) 시카고 대학의 ‘LoosRoots’ 풍물그룹과 UIC, 문화마당의 ‘일과놀이’패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기해 한인타운의 지신밟기 행사를 벌인다.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북과 쟁과리 등을 두드리며 복을 기원한다.

7. 사라지는 한인타운?

1980년대부터 급속히 한인상가들이 몰리면서 형성된 로렌스의 한인타운은 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다. 그 공간에는 한인들의 이주의 땀과 혼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로렌스의 한인타운은 번영과 함께 다시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다. 경제적 기반이 나아진 한인들은 점차 교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그곳에 비교적 세련되고 단아한 쇼핑물 단위의 한인상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후반 한국이 본격적으로 주변부의 지위를 벗어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신(新)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1960-1970년대 빈곤을 벗기 위해 한국을 떠난 이주 집단과 ‘매우 다르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의 이민자들은 한국에서도 부유층에 속하거나 상당 정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자녀 교육’, ‘보다 나은 삶의 향유’, ‘가족과의 결합’ 등의 이민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²⁷⁾ 백인의 중산층의 생활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신이주민들은 이민 초기부터 대개 거주 및 교육 환경이 좋은 교외에 정착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로렌스 거리가 쇠퇴하는 경제적 이유는 미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조건과도 맞물려 있다. 주로 한인들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던 흑인거주지역인 ‘사우스’와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로렌스의 한인타운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사우스의 장사가 잘 되어야’ 한인들의 로렌스 타운의 경제도 활성화된다. 그러나 1990년초 무노동무임금자에게 사회복지지출을 삭감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실시된 이후 흑인들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유효수요의 감소로 인한 한인들의 상가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그 여파가 한인 서비스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로렌스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7)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Ablemann and Lie(1995), 김유경 외(1987). 그리고 LA 폭동 이후의 한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Ablemann and Lie의 위의 책과, Totten(1983), Yu(1994) 등을 볼 것.

또한 로렌스의 한인타운이 쇠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장의 포화에 기인한다. 즉, 거의 한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서로 몰려들면서 부동산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수요창출의 부재 속에 한인상가들이 서로 극단적인 경쟁을 하게 되면서 상가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인타운이 쇠락하는 이유는 한인들 스스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주거 및 상가를 교외로 이주시킴으로써 로렌스 한인타운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로렌스의 공간은 한인들의 구심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게다가 한인 조직들, 상가들 간의 갈등과 반목은 공동체의식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인타운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다만 한인상가의 밀집지역이라 부르고 싶다. 한마디로 커뮤니티의 혼이 없다.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타운이 되는 게 아닌가 나는 1970년대 이민을 와서 이 근처에 집을 얻고, 사우스에 가게를 내서 돈을 벌었는데 솔직히 이곳은 범죄율도 높고, 주거환경, 교육환경도 나쁘다. 지금 스코키 쪽으로 옮겼는데 나부터가 이곳에 정 붙이기가 어렵다. 사실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 아닌가. 한탕주의지 뭐,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나가면 그만이지. 커뮤니티의 혼이 없어...

한인타운에 별로 올 기회가 없다. 오더라도 노래방이나 한두번...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못 사는 것 같고... 요즘은 식당에 가도 우리 집 교외에도 깨끗한 한인식당들이 생겨서 그곳으로 가지, 이곳은 잘 오질 않는다. 한인타운 글썩, 그냥, 한국과 같은 이미지 아닐까. 우리 부모세대가 편안해 하는 장소라는 정도...

로렌스의 한인타운은 중국타운과 같이 독특한 물리적 상징체가 없다. 한국어로 쓰여진 간판을 제외하면 '차이나타운'의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고전적인 중국식 대문이나 그러한 유형의 건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중국타운의 색깔과 건물들의 치장은 중국적인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이라는 언술은 이미 동양에 대한 백인들의 묘한 호기심, 성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투어리즘’과 연결된 교묘한 상업주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위계와 권력에 의한 인종차별의식이 반영된 공간언어라는 분석이 있지만, 중국 이민자들은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 공간을 구심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인종 사회에서 그들의 공공영역을 지속·확대시키고, 그들의 삶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Anderson, 1988; Davisson, 1967).

한인타운 역시 사회적으로 서열화된 소수민족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차이나타운’과 달리 상업화의 이미지나 한인들의 응집력 있는 구심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인들의 정체성이 옹어지고, 어쩌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잡은 한인들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행의 공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한인타운은 한국 전통이 재생산되고, 감성이 생성되는 한국인의 공간이다.

그렇지, 혼이 없어지고 있긴 해도... 그래도 술 한잔 멋들어지게 먹고 기분 한번 내려면 이곳에 오지. 솔직히 이곳에 오면 편하거든... 마이크 잡고 흘러간 노래 한번 부르면 스트레스가 가시고...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문화패를 중심으로 한 일부 2세대들은 로렌스의 한인타운에 한인(韓人)의 혼이 심어져야 하며, 그들의 공공영역으로서 한인들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구심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렌스의 한인타운은 1세대에게는 모국에 대한 ‘향수’, 2세대에게는 ‘상상의 한국 사회’로의 호기심이 지향된 공간이기도 하다.²⁸⁾

28) 한인타운은 그들에게 도시 속의 ‘게마인샤프트’적인 관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이에 대해 Gans(1962)를 볼 것. 한편 상상의 한국 사회는 앤더슨(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으로부터 빌어온 것이다.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곳 슈퍼에 들르기 위해 한인타운을 찾는다. 김치랑, 고기랑. 즐겁지 않은가. 물론 동네는 지저분하고, 못 사는 듯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다.

로렌스의 한인타운의 허름한 경관(landscape)은 고생과 착취형 노동으로 점철된 과거 이민 1세대들의 삶의 흔적들이다. 이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메리칸 드림’의 꿈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인타운의 공간적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김왕배 wangbae@yonsei.ac.kr

참고문헌

-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도서출판 한울
김유경·일레인 김·찰스 김·홍인숙(공저). 1987, 『아이들 때문에 — 미국 이민과 자녀교육』, 영학출판사.
뉴욕한인회(편). 1986, 『미국 속의 한인 사회』.
민병갑 외. 1991, 『미국 속의 한국인』, 유림출판사.
민병용. 1985, 『미주이민 100년: 초기 인맥을 캐다 — 로스앤젤레스』, 한국일보사 출판국.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1995. 『칠십년사』.
신성려. 1985, 『하와이이민역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유의영. 1992, 『미국을 사는 한인들』, 로스앤젤레스: 한국일보사.
이광규. 1989, 『재미한국인』, 일조각.
장태한·김정희. 1995, 『코리안 아메리칸의 발자취를 따라』, 태평양평화연구소.
최봉운. 1983, 『미국 속의 한국인』, 종로서적.
Abelmann, N. and John Lie. 1995, *Blue Dreams, Korean American and the Los Angeles Riots*, Harvard University Press

- Anderson, K. J. 1988, "Culture hegemony and the race-definition process in Chinatown, Vancouver: 1880-1980," *Environment & Planning: D*, Vol. 6.
- Barnes, Trevor J. and J. S. Duncan. 1992,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New York: Routledge.
- Barthes, R. 1986, "Semiology and the Urban," in M. Gottidiener and A. Lagopolous(eds.), *The City and the Sign*, Columbia University Press.
- Bleicher, J. 1980, *Contemporary Hermeneutics: Hermeneutics as Method, Philosophy and Critique*, Routledge and Kegan Paul.
- Chang, Edward T. and Russell Leong. 1994, *Los Angeles: Struggles Toward Multiethnic Communi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oleman, Craig S. 1997, *American Image of Korea*, N.J.: Hollyum Co. Pub. pp.223-224.
- Davisson, R. Jr. 1967, "Dragon and San Francisco," *Landscape*, Vol. 17, No. 2, winter.
- Duncan, James.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can, James and N. Dunca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6.
- Fornas, Johan. 1995, *Cultural Theory & Late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
- Gans, H. J. 1962, *The Urban Villagers*, The Free Press of Glencoe.
- Gracia, Jorge J. 1995, *A Theory of Textuality: the Logic and Epistemol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roth, P and T. W. Bressi(eds.). 1997, *Understanding Ordinary Landscap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ll, S. 1994, "Encoding, Decoding," in S. Doring(ed.), *The Cultural Studies Reader*, Routledge.
- _____(ed.).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Sage Publication Ltd.,
- Kim, Hyung-Chan. 1977, "Korean Community Organizations in America: Their Characteristic and Problem," in *The Korean Diaspora*.
- Kim, Hyung Chan and Eun Ho Lee(eds.). 1990, *Koreans in America, Dreams and Realities*, Seoul: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Kim, Kwang-Chung and Kim, Shin. 1997, "Marginal Position of Korean Small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presented paper at 7th

North Park University Korean Symposium.

- King, Antony. 1996, *Re-Presenting the City: Ethnicity, Capital and Cultural in the 21st Century Metropoli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Kwon, Ho-Youn(ed.). 1994, *Korean Americans: Conflict and Harmony*, Chicago: North Park College.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 Light, Ivan and Edna Bonacich. 1988,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 in Los Angeles, 1965-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einig, D. W.(ed.) 1979,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lendy, Brett H. 1977, *Asians in America: Filipinos, Koreans and East Indians*, Boston: Twayne Publishers.
- Min, Pyung Gap. 1996,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L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Min, Pyung-Gap. 1988, *Ethnic Business Enterprose: Korean Small Business in Atlanta*,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Mumford, L. 1970, *The Culture of Cities*, A Harvest/HBJ Book.
- Palmer, R. E. 1969, *Hermeneutic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Rotenberg, R and G. McDonogh(eds.). 1993, *The Cultural Meaning of UrbanSpace*. London: Bergin & Garvey.
- Suttles, G. 1984, "The Cummulative Texture of Local Urban Cul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2).
- Totten, George O. III and H. Eric Schokman. 1994, *Community in Crisi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fter the Los Angeles Civil Unrest of April 1992*, Los Angeles: Center for Multiethnic and Transnational Studies, USC.
- Wayne, Patterson. 1988, *The Korean Frontier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103-105.
- Yu, Eui-Young. 1994, *Black-Korean Encounter: Toward Understanding and Alliance*, LA: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and Pacific Asian Studies.